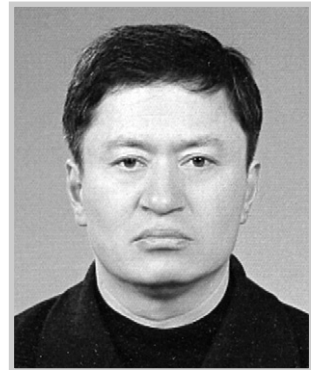


| 제 언 · 슈퍼박테리아 |

슈퍼 박테리아 출현의 주범, 축산업계는 NO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이 인 호

2006년 7월 30일부터 3회 연재된 K신문의 『식탁위협 동물용 항생제』시리즈기사내용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과 축산 및 동물약품관련협회가 이들 주요 일간지의 비과학적인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역을 치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보도내용의 주요 핵심의 하나는 변함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일부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축산업계에서 항생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축산물을 통한 인체내성이 증가되

어 사람의 건강이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발로 축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체 항생물질 내성증가 주범의 절대 다수가 축산업계와 축산물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재확인시키자는 것인데, 가뭇에 단비와도 같이 2006년 8월 8일 MBC-TV PD 수첩이 『병원 내 세균감염의 심각성과 함께 피해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슈퍼박테리아(Super Bugs)출현에 대한 책임소재의 절대 부분이 병



원의료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생생하게 확인됨으로써 축산업계에 원균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생생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TV고발은 이미 본인이 월간양계의 독자투고를 통해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2000년과 2003년에 방한하여 서울대학교와 호텔세미나에서 슈퍼박테리아와 콕시들탁제에 대한 강연을 한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Bywater 박사(2000, 2005년)와 Bafundo 박사(2006년)가 『사람의 항생물질내성증가에 미치는 동물용 항생물질의 기여도는 10%미만으로서 절대 다수는 사람의료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한 논문의 내용과 미국 동물약품협회(AHI) 홈페이지(www.ahi.org)에 있는 인용 자료와도 일치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항생물질의 오·남용과 관련된 방송과 주요 일간지의 보도가 있을 때마다 축산과 수의 관련 전문가집단과 협회에서는 국제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논문(예: J.Antimicrobial Chemotherathy, 2004)과 Feedstuffs지(2006년 7월 3일)와 같이 세계적으로 배포되는 정보지에 게재되는 『축산업계에 대한 의료계의 공세에 대한 방어에 매우 유익한 정보』를 왜 전문가들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방어용 자료로 유용하게 제공하여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 바이다.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KBS-TV를 비롯한 공영방송 및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미국, 일본, 덴마크를 비롯한 축산선진국가에 비해서 축산물 생산량 대비 항생물질 사용량에 있어서 선두권에 있음을 계

속해서 지적을 당한 바 있고, 급기야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신청한 감사청구요구로 인해 농림부축산물위생과가 이미 산하기관을 상대로 예비감사를 마친 감사원의 본 감사일정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주도로 『항생물질의 신중사용(Prudent Uses)』과 『수의사처방에 의한 약제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및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동향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세를 우리나라의 현실만을 내세워 역행하는데 편승하려들거나,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중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순응해 나가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업계전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들어서 자가 진료 금지 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출로 불거진 농림부와 국건수(國健獸)의 마찰과 해묵은 축산업계와 수의업계의 대립으로 인해 『수의사처방 문제』를 비롯한 축산과 수의업계의 내부적인 문제의 제기까지도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NVRQS)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협조로 K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서 수의사 처방과 관련한 의견과 향후일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축산·수의업계에 압박을 가하는 순서가 뒤바뀐 행위가 발생하는 지경에 도달해 수의학자들과 관련 공직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일본의 동물용의약품검사소(NVAL)와 같이 단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항생물질관련 내

성안전관리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국무조정 실 T/F사업 팀의 위임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이 되어 10년 계획으로 시행중인 용역연구개발 사업의 『축산용 항생제 관리시스템 구축』 연차실적보고서가 방송과 주요일간지의 기사를 작성한 PD나 기자의 근거 자료로서 우선적으로 인용되면서 KFDA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축산용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문제를 비롯한 항생물질 내성관련보도가 금번의 K일간지에서 보듯이 일부 과학적이지 못한 재량수준으로 나올 때마다 축산·수의업계에서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반박근거 자료의 미비와 거대언론을 상대로 반대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대한 공직자들의 소속기관의 부담증가로 인해 수세적인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축산업계가 슈퍼박테리아 발생의 절대 다수의 책임이 있는 주범인 것처럼 일반국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병의 상재지인 우리나라의 축산현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전과 같이 항생물질을 오·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신중사용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슈퍼박테리아 출현책임의 절대 다수는 MBC-TV PD수첩에서 보듯이 『병원 내 감염』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검증하여 축산업계의 책임은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반국민들에게 입증시키는데 축산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계**